

## 6강/ 교회는 종말론적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5번째 해결 방법 - 고전15장)

### I. 오늘의 point

1. 바울이 부활을 고린도전서에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를 알아본다.
2. 교회는 종말론적 방향을 가진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알게 한다.

### II.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부활에 대해 자세하게 전하고 있을까?

고전15장은 부활장으로 불린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고린도전서를 제외하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서신은 없다.

고전15: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알게 한다는 말은 “명백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명백하게 알게 되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명백히 알도록 하려는 내용이 바로 부활이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대해 자세히 알도록 전할까?

#### 1.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15:12)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결국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 1) 부활은 교회의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준다.(종말론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빌3장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알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한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갔다.

빌3:10-12(표준새번역)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상실한 교회는 세상에 대한 역할을 잃어버리고 현실종교로 전락된다.

#### 2)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이다.

바울은 부활장을 통해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강조한다.(고전15:3-4)

바울은 예수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한다. 이유는 부활

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다.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라는 의미이다. 이 약속은 약속하는 이는 신실함을 보여야 하고 약속을 받은 이는 믿어야 한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구조를 가지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기에 이제 모든 삶은 선취적 자세로 삶을 산다. 즉 우리의 미래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신 사건은 바로 부활이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빛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어둠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과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 바울은 4가지를 강조한다.

- 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내용, 행동과 삶이 모두 헛것이 되어 버린다.(14절)
- ②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 되어 버린다.(17절)
- ③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15절)
- ④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 버린다.(19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했다. 실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였다.(행28장31절)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말해 버린다면 그는 거짓 증언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 그가 말한 내용 등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 버린다.

#### 4) 방향을 상실하는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지 않다.(고전15:32)

고린도교회가 당파를 생긴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본다.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분열, 분쟁을 할 수가 없다. 또한 근친상간, 음행 등 불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 2. 왜 고린도교회는 방향을 상실했을까?

### 1) 인간의 이성의 한계와 신앙의 위력

인간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단정 속에 살아간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와 살아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고 질문한 것이다.(고전15:35)

신앙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 그때 부활은

믿을 수 있게 된다.(100세에 아들 얻은 아브라함, 여리고 성,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 등 이런 것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출발할 때에 믿을 수 있게 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 2) 과연 예수가 부활한 것이 역사적 사실인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하는 문제는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어 왔다.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된다.

- ① 역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역사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
- ② 십자가의 죽음에서 제자들은 도망을 갔다. 그러나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들의 공통된 외침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 3. 예수의 부활이 가져준 새로운 공동체의 삶

역사에는 크게는 2가지 사고 이해를 가지고 있고 세분하면 3가지로 나눈다.

- ① 우주론적 사고 : 순환적 사고 - 고대 사회가 가진 사고  
우주는 순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은 운명,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사고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 ② 역사적 사고(유대인적 사고) : 과거 → 현재 → 미래(현재는 과거에 의해 영향을 받고 미래는 현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 ③ 역사적 사고(기독교) : 삶의 방향 : 과거 → 현재 → 미래  
삶의 영향 : 미래에서 과거와 현재가 영향을 받는다.

## III. 오늘의 적용

- 1. 오늘날 교회가 종말론적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순간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게 됨을 깨닫게 된다.
- 2. 기독교인은 과거에서 오늘을, 오늘에서 내일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미래 되시는 주님을 통해 오늘을 보며 나아가야 함을 알게 한다. 신앙은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걷게 함을 깨닫게 된다.